

아이스하키 초등부 광주대표 자격 논란

타지역 선수들이 포함된 초등부 아이스하키 팀이 내년 2월 열리는 전국동계체육대회 광주대표팀으로 선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클럽팀이 증가함에 따라 순수 지역 출신이 선발 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규정 변경을 요청했지만 바뀌지 않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9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내년 2월 서울 등지에서 펼쳐지는 제100회 동계체전 아이스하키 초등부 선발전이 지난 4일 영주체육관 빙상장에서 펼쳐졌다.

선발전에는 광주에서 창단된 A·B·C팀 등 3개의 클럽팀이 참가해 A팀이 부진승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나머지 두팀은 예선전을 펼쳤으

지난해부터 규정 변경 요구했지만 묵묵부답 "지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어린 선수들만 피해"

며 B팀이 승리해 결승에서 A팀과 맞붙어 2대 8로 패했다.

A팀에는 광주 출신이 아닌 서울 지역 선수들이 5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문제가 불거졌다.

5명의 선수들은 서울에 주소를 두고 학교까지 다니고 있으며 이번 선발전에 A팀 소속으로 뛰어 출전권을 확보했다.

B팀의 학부모들은 반발했지만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겨울스포츠 불모지인 광주는 아이스하키 초등클럽 1개팀이 창단된 이후 현재 3팀으로 늘었으며 중등 2

개팀 포함, 100여명이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체육회는 클럽팀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출신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 10월 상위기관인 대한체육회에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대한체육회 규정에는 "타 지역 선수의 경우 학교가 아닌 클럽에 등록할 경우 해당 지역 선수로 출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체육회는 규정을 근거로 대회를 지켰으며 경기에 앞서 감독들에게 선수명단까지 보여 준 뒤 "경기 이후 이의제기를 하

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한체육회의 동계체전 출전 자격은 하계체전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하계체전 출전 선수는 지역 출신(학교)으로 한정돼 있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대한체육회 동계체전 규정은 겨울스포츠 주변 확대를 위해 과거에 만들어져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월에도 개선 건의를 했지만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체육회가 상위기관이어서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며 "최근들어 대한체육회가 동계체전 선수 등록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전국체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인호 기자

프랑스 4주째 '노란조끼' 시위 135명 부상

프랑스에서 유류세 인상에 항의하는 '노란 조끼(Gilets Jaunes) 운동'을 계기로 시작한 대규모 시위가 8일(현지시간) 파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걸쳐서 4주째 이어졌다.

파리에는 시위대 1만명이 운집했고 전국적으로는 12만5000명이 노란조끼 운동에 참여했다.

AFP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른 아침에 파리 중심가 샹젤리제에 모인 노란조끼 시위대는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최루탄과 물대포까지 발사했다.

시위 군중은 상점의 유리창을 깨고 시내 곳곳에서 불을 지르는가 하면 종일 최루탄을 쏘는 경찰과 충돌했다.

거대한 현수막을 내건 시위대는 에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긴급선거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내무장관은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17명을 포함해 135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카스타네르 내무장관은 시위대의 과격 행동에 특별 보안조치를 취함에 따라 시위자 거의 1000명을 연행 구금했다고 전했다.

프랑스 경찰은 시위대가 폭도화하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전국에 경찰 9만명을 투입 배치하며 경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또한 시위대의 과격한 행동을 우려해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 백화점, 쇼핑몰 등 관광 명소와 공공시설을 임시로 폐쇄했다.

이들 경찰은 노란조끼 시위가 개시되기 전에 예비 검색을 통해 파리에서만 278명의 신병을 구금했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궁 주변은 안전 확보를 위해 봉쇄 조치하고 거주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했다.

그때도 시위대는 장갑차와 트럭, 진압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엘리제궁 쪽으로 진입하려고 애를 썼다.

장갑차 지원을 받은 경찰 기동대는 최루가스를 쏘며 시위대의 접근을 막았다.

파리 중심가 일대 곳곳에서는 진압경찰과 불꽃 등을 던지며 저항하는 시위대 간 난투극이 벌어졌다.

카스타네르 내무장관은 이날 폭력 시위로 긴장감을 고조시켰지만 파리에서는 적절히 대처해 진정에는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잠입 시도 헤즈볼라 대원들 저지

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으로 잠입하려던 이슬람 과격 무장단체 헤즈볼라 대원들을 저지했다고 8일(현지시간) 밝혔다.

조나단 콘리쿠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이날 국경선에 접근을 시도하는 헤즈볼라 대원 3명에 총격을 가해 쫓아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국경선 밑에 지하터널을 몰래 굴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작전을 벌여왔다.

콘리쿠스 중령은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격퇴하기 위해 철책을 넘어 레바논 영내에 진입했지만 유엔이 설정한 휴전선(demarcation line)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콘리쿠스 중령은 이스라엘군이 지하터널의 동향을 포착 감시하기 위해 '고성능 센서'를 설치했는데 헤즈볼라가 악천후를 틈타 센서를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이스라엘군의 총격이 있자 헤즈볼라 대원들은 그대로 달아났다고 콘리쿠스 중령은 덧붙였다.

근래 시리아 내전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헤즈볼라가 레바논 국경에 뚫은 지하터널 여러 곳을 이스라엘 측이 발견하고 차단 파괴하고 있다.

중국 고속도로서 22중 추돌사고 23명 사상

중국 중부 후난(湖南)성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22중 추돌사고가 일어나 23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현지 당국이 9일 밝혔다.

후난성 고속경찰국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저녁 7시10분께 열린하이오터(二連嶺特) 광저우(廣州) 고속도로 이양(益陽)시 칭탕(淸塘) 구간에서 발생했다.

대형 트럭 등 차량들이 얼어붙은 노면을 달리다가 제동을 걸지 못해 줄지어 앞차를 들이받으면서 최소한 5명이 목숨을 잃고 18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가운데 한 명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번 대형 추돌사고로 인해 주변 고속도로 일대 사실상 교통 마비 상태로 도로를 나올 수 있지만 진입은 전면 통제됐다.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 '도마 위'

정상용(69)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은 인사' 논란과 업무연관성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 환경공단 이사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 오전 인사청문회를 열어, 정 후보자를 상대로 조직 운영 비전과 전문성 여부 등을 살펴본 뒤 병역·전과 등 신상 관련 검증 작업도 벌일 예정이다.

특위는 신수정 의원을 위원장, 최영환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광란·김용집·나현·박미정·조석호 위원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의회 안팎에서는 정 후보자 내정설이 오래 전부터 나왔고, 특히 환경 분야 업무 연관성과 전문성을 두고는 적절성 논란까지 일었다.

6월 지방선거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내 '보은 인사' 논란도 낳고 있다. 특히 광주시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회 개방형 전문위원(환경복지)으로 이 시장 캠프 상환실장이 낙하산 인사 '무너진 공보' 논란 끝에 선임된 데 이어 상임위 소관 공기업에 또 다시 시장 측근이 내정돼 과도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은홍 기자



강추위에 공공연 물레방아 9일 강원 태백산국립공원 당골광장에 있는 물레방아가 연일 계속되는 강추위에 공공연이었다. 이날 태백 아침기온은 영하 13도였다.

경찰 '진술 녹음 제도' 전국 경찰서 확대 시범운영

경찰이 더 강력한 '인권 보호'를 위해 진술 녹음 제도를 확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12일부터 3개월간 전국 21개 경찰서에서 해당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진술 녹음 제도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진술을 녹음 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3개월 간 대전 동부·유성 경찰서에서 1차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679명 조사 대상자 중 300명이 진술 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설문 응답

자 263명 중 215명(81.7%)가 진술 녹음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이 제도를 통해 ▲조사 대상자에게는 심리적 안정감 제공하고 ▲수사 과정이 투명화로 인권과 기본권의 두텁게 보호하며 ▲수사 공정성·신뢰성 제고하고 ▲조서의 정확도가 향상돼 실제적 진실 발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확대 시범 운영은 서울경찰청 등 대문·관악·노원경찰서 등 3곳 포함 전 지방청 소속 21개 경찰서에 이뤄질 예정이다. 참여 부서 또한 수사·형사부서 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진술 녹음을 통해 생성된 파일은

개인 음성 정보인 만큼 인권 침해 여부 확인, 진술자의 기억 환기,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 확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했다.

녹음 파일은 암호화해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재생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안 대책을 마련했고, 조사 대상자는 조사 후 파일을 청취하거나 정보 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

경찰은 "확대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 녹음 장비·절차 등 보완 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전국 경찰서에서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뉴시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이는요... 자태치로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므로,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 중 장애아가 많거나, 자활치료 중인 민력군